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논술답안은 문항별로 한 가지 필기구(볼펜 또는 연필)를 선택하여 통일되게 작성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갈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제일 뒷장의 연습지나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8. 문제지(연습지 포함)를 찢거나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9.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10. 시험 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1.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공 통 문 항

<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는 선거 때의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논의하면서, 인터넷상의 문제 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후보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에서 벌금 액수를 다소 높이는 정도로는 흑색선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흑색선전이 횡행할 것이 불 보듯 분명하고, 그럴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해 불복(不服)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정치적 무정부 상황을 빚어낼 위험이 크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밥을 사는 풍토는 2004년 선거법 개정 때 밥을 사는 사람도, 얻어먹은 사람도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실시돼 양쪽 모두를 엄하게 처벌하게 되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벌금형 자체를 없애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도록 하거나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글을 실어 나르는 SNS가 선거의 주요 무기로 등장하는 현실 선거에서 여·야 어느 쪽이 허위사실 유포로 치명상을 입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여·야는 정치가 흑색선전에 치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방어할 대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나> 허위와 진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과학계에서도 허위는 명백히 식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 있고 그 제도의 목표인 진실의 추구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진실이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위축효과를 가져오며, 허위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자인 국가가 체제유지를 위해 진실을 도리어 은폐하는 데에 남용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같이 특정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사기와 같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특정될 수 있는 공익이 있을 때만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또는 폭탄소문법*과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지만 명백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사기, 폭탄소문법과 같이 제한된 형태가 아닌, '허위' 자체 또는 그 범위가 불분명한 '허위에 의한 공익의 훼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제도가 촉발하는 위축효과, 진실 차단 위험성 및 체제유지에의 남용가능성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폭탄소문법 : 악의를 가지고 비행기나 자동차 등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법

<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별할 수 없다.

1. <가>, <나>, <다>에 담긴 주장을 각각 요약하고, 그에 의거하여 아래 사례에서의 A의 행위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사례> 시민단체 활동가 A는 국회의원 후보 B의 장관 시절 업무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전문가들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B가 추진했던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서 수요가 과다 계상되었고, 관광객 증대로 인한 경제 효과가 과장되어 있으며,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간과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A는 B가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고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올렸고 이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B는 선거운동기간 중 A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여러 차례 반박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한편 선거 후 B가 추진한 케이블카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 자체는 정당하며, 환경 파괴 등의 피해는 공익적 목적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계 열 문 항

<가> 인간은 약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가? 이 약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상대적 관계를, 즉 그 말이 적용되는 자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능력이 모든 욕망보다 넘치고 있는 경우는 곤충이든 벌레든 간에 강자(强者)임에 틀림없다. 욕망이 능력을 능가할 경우는 그것이 코끼리든, 사자든, 정복자든, 또는 영웅이든 심지어 신(神)이라 할지라도 모두 약자(弱者)다. 자기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반항한 천사는 자신의 본분에 따라서 평화롭게 산 지상의 행복한 인간보다도 더 약한 존재였다. 인간은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할 때에는 대단히 강해지고, 인간 이상이고자 할 때에는 대단히 약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확대하면 여러분들의 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오만이 힘보다도 더 확대되는 경우엔 오히려 힘을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들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의 반경을 재어 보자. 그리고 마치 거미가 거미줄 한가운데 있듯이 그 범위의 중심에 머물러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루소, 『에밀』>

<나> 거사(居士)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하기가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같았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님이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거사는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네. 그러나 이 세상에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 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나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걸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아, 고인(古人)이 거울을 대한 것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까닭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한 까닭이니,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하였다.

<이규보, 「경설(鏡說)」>

<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향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향아리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中 일부>

2. <가>의 논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거사'와 <다>의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를 옹호 또는 비판 하시오. (1000±100자)